

해학...웃음...감동의 한마당

■ 24~27일 목포 전국우수마당극제전

유달예술촌 등 50여 프로그램 진행

그곳에 가면 의심과 해학과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그럴듯한 무대 세트도 없고, 화려한 조명도 없지만 배우들의 땀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곳에선 신명난 한판 난장이 벌어진다. 우리 전통 연희 양식인 마당극이 주는 가장 큰 매력은 바로 관객과 배우가 하나되어 어우러지는 흥겨움이다.

한여름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마당극 치장이 잇따라 벌어진다. 지난 2001년 첫발을 뗀 목포전국우수마당극제전에는 국내외 팀들이 총출동, 한바탕 흥겨운 공연 난장을 펼친다. 올해 행사의 주제는 '여정 7월 호미씻이 한판, 웃음 속으로!'다. '호미씻이'는 7월 농한 기를 이르는 말로 오늘날 휴가철과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다.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유달산 예술촌과 정자마당(유달산 주차장), 모심아트센터, 슬마당 등에서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한 여름 뜨거운 핫빛이 사그라드는 오후 7시부터 밤 11시까지 계속된다.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우수



마당극 공연'이다.

강렬한 타악과 신명난 우리 놀이가 어우러진 (사)들소리의 '집단 신명 퍼포먼스 타오', 목포극단 자갈치의 '굿거리 트로트', 예술공장 두레의 마당극 '강', 기상천외한 백수들의 이야기를 그린 마당극단 '좋다'의 '백수의 전설', 경상도 사람들이 재해석한 5·18 이야기인 '일터'의 '오래된 만남', 놀이페스티벌 '술래소리' 등이 신명난 한판을 선보인다.

'해와 우수작 초청 공연'도 눈길을 끈다. 중국의 다양한 기예를 만나는 쿤룬류의 '아크로바틱', 영국단체 마티어스의 '퍼포먼스', 아프리카 댄서들이 펼치는 '아프리카 타악과 춤', 세계 최고의 저글러 데이비스 클레이페치가 선보이는 '코믹 저글링' 등이 흥겨운 무대를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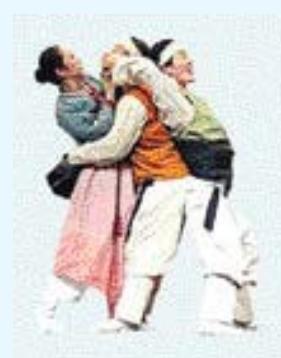
'마당콘서트'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코너다. 북새통의 뮤지컬 '가든장 야기', 트리스트 무용단의 '거리, 고리, 꼬리', 아카펠라 그룹 '아카시아'의 공연 등이 진행되며 웃음의 균원을 찾는다.



2008 목포 전국우수마당극제전 참가작인 '일터'의 '오래된 만남'.

'걸웃을 속울음'에서는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 안동 하회춤, 북청 사자놀이 등이 선보인다.

그밖에 마당극 아트마켓, 임근우 설치미술전, 이석금 창작랄 특별전 등이 준비돼 있으며 엄마와 함께하는 연극놀이, 영어와 함께하는 서커스 교실 등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문의 061-243-9786.



놀이페 신명 광주 5·18공원서 공연

광주에서도 마당극 공연이 열린다.

놀이페 신명은 오는 25일과 26일 오후 8시 광주 5·18 기념공원 대동광장에서 마당극 공연을 갖는다. 레퍼토리는 단순한 먹을거리로 넘어 우리의 문화이고 삶의 쌀을 소재로한 작품 '밥이 지일이여'다.

씨나락 하나가 수백개의 나라이 꽈 우리 우리 밥상에 오르기까지 자

연이 나누어준 커다란 은혜와 농민들의 깊은 땅밥들이 신명난 풍물 반주와 이살스런 몸짓으로 묘사된다.

'앞마당 - 오방신 입춘부' '씨나락 납신', '얼씨구씨구 들어간다!', '여허루 상사위여!'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김호준·오숙현·김정훈씨 등이 출연한다. 문의 062-527-7295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아트 투어' 상품 나왔다

전시관·소쇄원·백양사 등 관광

제7회 광주비엔날레(9월5일~11월9일) 기간에 비엔날레 전시관과 담양 소쇄원, 장성 백양사 등을 둘러볼 수 있는 아트 투어 상품이 나왔다.

광주비엔날레 제2회는 9일 아시아권 비엔날레 공동 마케팅 전략인 '아트컴페스 2008 퍼키지 프로그램'을 내놨다. 관람객이 아시아권 비엔날레를 편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호텔, 항공권 예약 등을 각국의 비엔날레 제2회들이 공동으로 지원해주는 관광 상품이다.

이번에 나온 상품은 5가지이며 광주비엔날레와 제

7회 상하이비엔날레(9월9일~11월16일), 제2회 싱가폴비엔날레(9월11일~11월16일), 제3회 요코하마트리엔날레(9월13일~11월30일)를 둘러볼 수 있다.

투어1, 2는 광주비엔날레를 자유롭게 관람하고 소쇄원, 백양사, 명계(전통 다과 체험) 등의 관광지를 들르는 상품이다. 투어3은 상하이비엔날레, 투어4는 요코하마트리엔날레, 투어5는 싱가폴비엔날레를 찾아가는 상품이다. 가령 광주비엔날레와 요코하마트리엔날레를 보고 싶은 관람객은 투어1이나 2와 투어4를 함께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문의 062-608-4224.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기훈씨



전남문화산업진흥원은 9일 이사회를 열고 초대 진흥원장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지역문화산업팀장인 김기훈(43·사진)씨를 임명했다. 김 원장은 다음 달 진흥원이 개관하는 대로 3년간 진흥원 수장으로서 지역 문화 콘텐츠 산업을 이끌게 된다. 김 원장은 "문화 콘텐츠 산업이 지역경제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과 인력 양성, 성장잠재력이 큰 신규산업들과 연계한 글로벌 마케팅에 주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체희경기자 chae@kwangju.co.kr

하정웅 청년작가 초대 '빛 2008'전

10~8월17일 광주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은 10일~8월17일까지 하정웅 청년작가 초대 '빛 2008'전을 개최한다. 올해 선정된 작가는 박용선(조각·충남), 하광석(영상설치·대구), 김계완(서양화·경기), 김진화(서양화·광주), 정혜련(서양화·부산)씨 등 5명이다. 모두 30대의 젊은 작가들이다.

이들은 이번 초대전에서 '빛(Light)'을 주제로 자신의 예술적 가치를 실현한 회화, 설치, 영상 작품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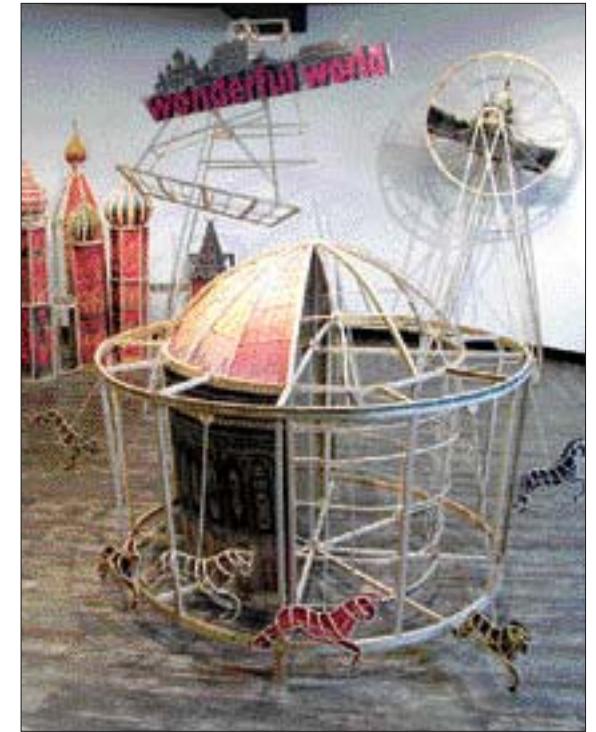
김계완씨는 낚시 미끼인 루어(lure)와 은박지를 주된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 작품에 드러나지 않은 인간을 물고기로 전제한 뒤 유혹(미끼)에 흔들리는 모습을 상징적 의미로 표현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김진화씨는 검정과 흰색 무늬의 배열을 통해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드러내 주는 작품을 전시한다. 미로처럼 얹혀 있는 무늬를 배경으로 날개를 단 여자를 등장시켜 혼돈 속에서 꿈을 찾는 현대인의 자화상을 형상화했다.

또 정혜련은 회화, 조각, 설치 등 세 가지 장르가 잘 섞여 빛어낸 작품을 출품했다. 이미 사용했던 가죽에 잘 휘어지는 나루재료를 첨가해 권력가의 집이나 유명한 관광 명소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주로 현대인의 자아 찾기에 몰두하고 있는 하광석은 커다란 눈(眼)이 허공에 떠다니는 모습을 영상 설치 작품으로 선보인다. 비누와 나뭇잎을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 박용선은 설치 작품을 통해 빨래에서 풍기는 향기를 담아냈다.

이 전시는 광주시립미술관에 2천700여점의 작품을 기



정혜련 작 'The wonderful world'

증한 재일교포 하정웅(광주시립미술관 명예관장)의 메세나 정신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전국의 청년작가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삭막한 도시에 포근한 색을 입혀라

서양화가 조근호

4대 도시 순회전

나무, 건물, 자동차가 어우러진 서정적인 도시 풍경을 넘나들고 있는 서양화가 조근호씨가 광주, 서울, 대구, 부산을 도는 전국 4개 도시 순회전을 갖는다.

이번 순회전은 13일까지 부산 김제선갤러리를 시작으로 22~31일 대구 갤러리 소회, 8월4~13일 광주 나인갤러리, 8월20~26일 서울 고도갤러리에서 계속된다.

이들 갤러리들은 '네오메타포'라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각 지역 작가의 전시회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순회전에는 조근호를 비롯해 서울 정인원, 대구 김민수, 부산 설종보 등 4명이 선정됐다.

조씨는 이번 전시에서 삭막한 도시 풍경에 담백하고 포근한 색을 입힌 작품을 선보이다. 카메라 초점이 맞지 않아 흐릿해진 사진처럼 조씨가 그려낸 풍경은 아주



'오후'

먼곳을 바라다보는 것처럼 사물의 형태가 또렷하지 않다. 하지만 간결한 색과 면의 처리로 동양화에서 느낄 수 있는 여백의 미를 물씬 풍긴다. 또 나무에 꽂이 꽂듯 작은 점을 찍어 단조로운 화면 구성을 보완했다.

조씨는 이번 전시에서 삭막한 도시 풍경에 담백하고 포근한 색을 입힌 작품을 선보이다. 카메라 초점이 맞지 않아 흐릿해진 사진처럼 조씨가 그려낸 풍경은 아주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영화보다 더 재밌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미가박스

구. 편의점 약국 사거리 ☎ 예매 1544-0600

1관

직벽대전 - 거대한 전쟁 (15세)

2관

핸콕 (12세)

3관

원티드 (18세)

4관

원티드 (18세)

5관

직벽대전 - 거대한 전쟁 (15세)

6관

알. 이. 씨 (REC) (18세)

7관

강철중 (공공의적1-1) (15세)

8관

노크 (15세) / 잘못된 만남 (12세)

9관

크로싱 (12세) / 직벽대전 (15세)

영화 티켓 이수하면 경품과 혜택이 쏟아진다! (~2008.8.31)

• 이프유 주차장 이용 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 후에 한정)

• 이프유 주차장 이용 시 2시간 30분 초과 시 정상료 부과

• 영화 관람 후에 한정)

• 영화 관람 후에 한정)